주일예배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주일예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4월 26일 (제 1355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컬럼

절박한 기도

절박한 심정이 되어 보았는가? '절박(切迫)하다'는 끊을 절(切), 닥칠 박(迫)으로,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어 벼랑끝에 선 심정을 말한다. 피할 길도,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일 때를 말한다.

그때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다. 간줄기가 끊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고,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달려오는 상황. 이보다 절박한 순간이 또 있을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사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셨다. 그렇다. 형식적인 기도는 하늘을 스치지만,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곧 죽으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고(왕하20:2), 브닌나의 멸시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했으며(삼상1:10), 3년 6개월간 닫힌 하늘의 문을 열어 비를 내려달라고 엘리야가 머리가 가랑이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한 것이다(왕상18:37).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시키셨고, 한나에게 아들을, 엘리야에게 닫힌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하셨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없어서가 아니다. 절박함,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직 버틸만해서, 아직 의지할 것이 남아 있어서, 간절함이 아직 없어서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신다. "너희는 (간절히)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암5:4).

절박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자리다. 하갈이 아들이 죽게 됨을 보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앞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셨고, 아들의 장래까지 확증하지 않으셨던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박한 기도를 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대충,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시간 낭비요, 에너지 낭비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응답하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의정부교회 새성전 입당 및 전도집회

"축하한다. 그런데 이장님은 오셨니?"

총회장 목사님이 의정부교회에 당도하셔서 박찬일 목사에게 맨 먼저 하신 말씀이다. 박 목사는 "네?" 하며 놀라는 눈치였다. 목사님은 박 목사에게 "입당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성전이 크고 좋으면 뭐 하니? 푸른 초장인들 양 떼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교회의 사명은 성전 건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는 거야. 이장님을 모시면 이 마을의 전도가 용이할 것 아니냐."라고 설명하셨다.

그날 목사님은 새신자를 겨냥하신 듯,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성전에 오르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서 아주 멋진 두 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걸까요? 복 받으라고 그런 겁니다. 저희 집안은 절까지 지어놓았습니다. 그곳에 제일 큰 등에 제 이름이 딱 하니 붙어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임대 사업을 시작하면서 공교롭게도 빌딩 두 군데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제 빌딩에 입주한 교회의 목사님들은 저만 보면 '이사장님,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니 '예수는 믿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디다.

어느 날, 목사님이 또 '이사장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길래, 제가 '왜 매번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라고 물으니, 목사님이 '이사장님,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복이라면 제가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인지라,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마음의 평안까지도 얻으셨습니까? 죽은 뒤에 영생은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살지만,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만든 형상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돈 내서 만들어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다니….

그래서 교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제 체질에 영 맞지 않았습니다. 박자도 무시한 채 큰소리로 찬양하고,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라는 분을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형식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만나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고, 늘 채워지지 않던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나달라고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면 친히 해결해주십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아프다고 하면 고쳐주십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올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야 그래라 하겠지만, 절대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고통받는 자가 해방됩니다. 그리고 추석 때 미리 버스표를 예약해놓으면 당일 고향에 데려다주듯, 지금 예수를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찬송을 하면서 20여 명의 새신자들을 일일이 악수해주셨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새신자를 단에 올려 함께 춤을 추셨다. 또한 설교 중에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하셨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전해야 한다. 이 귀한 구령사업을 의정부교회가 잘 완수하여 부흥 발전하기를 기도한다.

신묘수 전도사

의정부예수중심교회 입당 전도집회(2026년 4월 18일)

의정부예수중심교회 재직들

의정부예수중심교회 전경

예배 후 성도들과 함께한 즐거운 식사시간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5:11~24)

목적을 위해 자존심을 버려라

2007년 키르기스스탄 집회 때의 일입니다. 집회를 훼방하는 세력 중에서 우리가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구실로 저와 슬라바 목사를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집회 광고지에 '병을 고친다'고 적힌 문구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저와 슬라바 목사는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판사는 저에게 의료면허를 가지고 치유행위를 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슬라바 목사가 언성을 높이며 따지려 드는 겁니다. 저는 급히 슬라바 목사를 제지하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슬라바야, 너 누구 죽일 일 있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큰 소리야? 여긴 법정이야. 재판장이 '유죄! 땅땅땅!'하고 판사봉을 휘두르는 날이면 우린 꼼짝없이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만다! 조용히 하고 나에게 맡겨라!" 여판사였는데, 저는 공손한 자세로 두 손을 모으고 읍소하듯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이 나라 법을 몰라 그랬습니다. 선처해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벌금형을 받고 추방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 자리에서 자존심을 내세웠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일단 살아야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물에 빠졌는데 무슨 품위와 품격이랍니까? 일단 물에서 나오고 볼 일이죠.

사실 저는 일찌감치 자존심을 기도원에 있는 저의 가묘에 다 묻었습니다. 목회하는데 자존심이 거치적거렸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교회의 어느 목사가 사고를 쳤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괜한 가십거리가 될 것 같아 저는 바로 상대를 만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얼음장처럼 냉기가 흐르는 상대 마음을 보니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를 봐서 용서해주길 바래요."라고 했더니, 상대가 당황하며 "어서 일어나세요. 목사님을 봐서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문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자존심이요? 당연히 바닥을 쳤지요. 그러나 자존심 좀 깎이면 어떻습니까? 교단을 살렸는데요.

자존심을 버리고 후일을 도모하라

자존심이란, 스스로 자(自), 높을 존(尊), 마음 심(心)으로, 스스로의 품위를 높이 가지는 마음이며,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자존심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은 목적을 위해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고요.

성경에서 가장 자존심에 타격을 입은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일 겁니다. 그녀는 배울 만큼 배우고, 웬만큼 사는 여인인지라 자존심도 누구 못지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가 딸을 고쳐줍사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를 개 취급하신 것입니다(막7:27). 그러나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막7:28)라고 응수했습니다. '자식이 낫기만 한다면 자존심이 짓밟힌들 어떠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보시고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 아시죠? 그녀에게는 억울한 사연이 있었는데, 하필 그것을 해결해줄 사람이 안하무인인 재판관뿐이었습니다. 그런 재판관이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과부를 사람 취급이나 했겠습니까? 완전 무시했지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그녀라고 왜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만, 그래도 과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런 재판관도 과부에게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고 칭송을 받은 다윗도 살아남기 위해 자존심을 버린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이곳저곳을 쫓겨 다니다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게 되는데, 이때 신분이 노출되자 두려운 나머지 다윗은 미친 척합니다. 그는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 노릇을 했습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고 살고 보자는 것이었지요(삼상21:12~14).

나아만 장군이 끝까지 알량한 자존심을 세웠다면 어찌 되었을까요(왕하5)? 모처럼 친구가 집에 찾아왔는데 대접할 보리떡이 없던 자가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친구를 무엇으로 대접했을까요(눅11)?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아말렉 군대를 치고 전리품을 취해 돌아옵니다. 모든 소유를 가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추궁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변명만 늘어놓습니다(삼상15:15). 사무엘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고, 다른 사람으로 왕을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사울은 자존심 챙기기에 바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찌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삼상15:30). 하나님이 버렸다는데, 폐위한다는데 이 상황에 자존심을 챙기고 있으니…. 그의 비참한 말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는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가 모두 탕진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다 탕진하여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나올 때 큰소리 치고 나왔는데 자존심이 있지, 어찌 돌아가?' 갈등했지만, 살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 종이라도 되리라 결심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더니, 이게 웬 일입니까?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래야 합니다. 탕자처럼 자존심을 버리고 나가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울어대야 합니다. '이래 봬도 내가 박산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하십니까? 아직 덜 급하신 겁니다. 아버지 앞에 무슨 자존심입니까? 아픈데, 먹을 것이 없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내 앞에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무슨 자존심입니까? 구하면 다 주신다는데, 애통하면 위로 하신다는데 왜 못합니까?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구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스승을 부인했지만 베드로처럼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삽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자존심 챙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자존심은 순간이나 꿈은 영원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겔16:6). 일단 살고 보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야 후일이 있으니까요. 인격적으로 피투성이가 되어도, 자존심이 짓밟혀도 일단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6대 군사 강국으로, 10대 경제 대국으로 선 것은, 우리 선진들이 자존심 싹 다 버리고 선진국에 나가 원조를 받아오고, 차관을 들여오고, 눈칫밥 먹으며 기술을 배워왔기에 가능했습니다. 지지리 가난한 나라를 누가 반겼겠습니까? 먹다 남은 떡 주듯 했지만, 눈물을 머금고 기술과 자본을 받아와 오늘의 기초를 다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인류 구원, 곧 저와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다 버리시고 중죄인이나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2).

자존심,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잠시 접어두세요. 자존심이 첨병(尖兵)이 되면 망합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면 자존심은 저절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이초석 목사
필리핀 세부 집회
2026년 5월 6일(수)~12일(화)

:: 객원컬럼 ::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습만 보고 상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사라가 천막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속으로 웃는 것을 보셨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돈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갖고 왔다고 거짓 하는 것도 아셨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항상 높으시고 정확하시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어찌 모르시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다. 세리의 기도는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하셨다.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은 받으시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땅 판 돈은 거절하셨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시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창세기 6장에 창조하신 인간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노아만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셨다.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후회하셨고, 다윗은 당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라 했지만, 하나님은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욥1:8)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결국 욥의 친구들은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백부장 보고 '이스라엘 중에 너만 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다. 즉 '네가 최고다'라고 하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하셨다. 나다나엘에게는 '참으로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셨고,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기에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 내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나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이나 하나님께나 모두 100점 인생이라면 얼마나 멋질까. 그럴 수 없다면 하나님께라도 100점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1:20~21).

이시대 목사

:: 책을 펴다 ::

품질관리

대안불식 필사양찬(對案不食 必思良饌)이라는 말을 아는가? 밥상을 대하고도 밥을 먹지 않는 것은 좋은 반찬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소비자의 심리가 이렇다. 성에 차지 않는 상품을 구매하던 시대는 갔다. 가난하던 시절에는 양(量)으로 승부했다. 많이 주면 무조건 몰렸었다. 그러나 지금은 질(質)로 승부하는 시대를 지나 독창적인 것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만큼 소비자의 입맛이 까다로워졌다는 말인데, 까다로운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제품을 만들어 내면 그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

나는 요새 우리 교회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교회 상품이 무엇인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그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을 노량진 기도처에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기도에 집중시키고 있다. 품질관리 차원에서다.

자기 품질도 관리해야 한다. 외모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빼어난 미모 때문에 처음엔 다들 호감을 갖는데, 그녀가 입을 열면 가관이다. 무식이 통통 튀는 것은 물론이고, 상스럽기까지 하니…. 자기 가치는 스스로 높이는 법, 영·혼·육의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품질관리를 잘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벧후1:5~7).

품질관리는 기업경영의 초석이요, 성공의 밑거름이다.

이초석 목사 저서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라' 중에서

:: 신앙논객 ::

코람 데오(Coram Deo)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 하더니, 뒤에서는 내 얘길 안 좋게 해 어이가 없어."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정도 전에 유행했던 가요의 가사 중 일부다. 소위 뒷담화(談話)를 한다는 것이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잠18:8, 26:22). 잠언에 토씨 하나도 다르지 않게 반복해서 적혀 있는 이 말씀은 '남' 앞에서 감히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득 될 게 없으니 하지 말라는 것이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도, "만물은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격언도 결론적으로는 다른 누가 보지 않더라도 말조심하라는 뜻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을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14:28) 비단 말뿐이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까지 하나님은 위에서 다 지켜보시고 또 듣고 계신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시94:9)

코람 데오(Coram Deo),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음을 인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이 아닌,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주인이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거절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악을 행치 않았고, 그래서 목사님은 회중이 1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최선을 다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의 몸된 교회나 주의 종이나 성도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들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악인의 행동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당신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소리가 없어도 지금 하나님은 당신 앞에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자.

신혁주 전도사

:: 생명의 말씀 ::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최근 우리 교회 권사님의 남편분께서 소천하셨다. 살아생전 우리 권사님의 신앙생활을 많이 핍박하시며 힘들게 하셨기에 늘 신경이 많이 쓰였다. 여러 번 전도를 시도했으나 완고하기 이를 데 없었고, 저항감이 매우 컸다.

하루는 꿈으로 그 남편분께서 우리 교회 성전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드리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희박한 확률이라 생각하여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작년부터 갑작스레 암 투병이 시작되었고, 권사님께서 수발드시느라 1년을 고생하셨고, 복음 전파에 진력을 다하신 듯했다. 암이 서서히 악화되어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셨을 즈음에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퉁명스런 말투와 차가운 눈빛을 기억하기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으나 감동 따라 문을 두드렸다. 예상했던 대로 남편분은 좋은 말만 하고 가라는 엄포로 심방을 받으셨다. 그러나 담대히, 그리고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아멘'을 여러 번 따라 하기도 하셨다. 문득 그런 자신의 모습에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갑자기 몸을 휙 돌이키시더니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뭘 자꾸 따라 하라 시키냐?"면서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잔소리 계속할 거면 가쇼잉." 하시며 문전박대 아닌 박대를 하셨다. 나름대로 예수 없이도 잘 살아온 삶인데, 아내의 잔소리에다 목사까지 가세하니 힘드셨던 모양이다. 그래도 복음 전파의 반은 성공했다는 안도감에 진정을 시켜드리고 포기하지 않고 나왔다. 더욱더 악화되어 누워계시는 병실로 또다시 찾아갔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젠 저항감 없이 순순히 복음을 받으셨고 영접하시고 고백도 마치셨다. 그리고 며칠이 안 되어 주님 품에 평안히 안기셨다.

우리는 보통, 내가 살아온 세월을 맹신하며 잘 살아왔다고 자찬하며 산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당신만으로 채우실 절대공간을 위해 우리의 그릇된 자아를 완전히 벗기신다. 구원의 경험인 것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3:5). 삶의 모든 수고와 자랑의 이력들이 아닌, 민낯의 죄인으로 서 있길 원하신다. 그때부터가 그분이 일하실 시간이니 말이다.

송직화 목사

:: 간증 ::

이 어인 은혜인가?

의정부에 온 지 어언 25년, 지하실에서 눈물로 40일 철야기도를 두 번 하는데, 성령께서 '70평의 성전을 주리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주신다는 것을 모르는데,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총회장 목사님과 둘이 서울에서 배를 타고 의정부 신곡동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신곡동에 70평 주신다는 것으로 알고 매매 정보지를 보는데, 글쎄 신곡동에 70평 교회 건물이 매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달려가 보니 지상 4층이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려고 천정을 뜯어보니 고가 5미터나 되었습니다. H빔을 끌어올려 두 개층으로 건축해서 아래층에 본당, 위층에 교육관과 예배실을 꾸몄습니다. 그 후 100명의 성도로 부흥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4층이다 보니 다리가 아파서 힘들다고 하여, 다시 40일 철야기도 하고 땅을 매입하여 다시 한번 건축 이전했습니다. 건축비가 없어 여러 번 중단되었지만, 급기야 달러 이자까지 얻고, 토지 및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월 이자만 198만 원을 냈지만, 주님의 은혜로 한 번도 연체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부흥했고, 성전이 좁게 느껴졌습니다. 더 크게 건축하려고 매물로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인 은혜입니까! LH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우리 교회를 수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보상금액이 땅도 살 수 없는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경계선 도로만 건너면 행정구역이 양주시였기에 가능할 것 같아 도로 건너 양주시에 511평 부지를 15억 1천만 원에 매입하고 설계와 측량을 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수관로가 없어 건축을 할 수가 없다며 측량사무실에서 비용을 반환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하나 있는데, 120미터까지 남의 땅에 우수관을 묻어서 공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 주인들 네 명 가운데, 한 명만 동의해주고 세 명은 동의해주지 않으며 갑질을 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교회 들어오는 것은 반대라며 동의를 안 해주는 겁니다. 기도하며 방법을 찾아보다가 수자원공사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매입한 땅 앞에 농수로가 있어서 농수로 우수관을 연결하면 안될까 싶어 찾아갔는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이 위성사진을 컴퓨터로 보더니 농수로 앞에 농어촌공사 땅이 있으니 그곳으로 우수관을 신청해보라고 해서 토지를 소개한 부동산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측량사무실 한곳을 소개해주었습니다. 길이 없던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농어촌공사 공무원 말대로 했으나 또 복병을 만났습니다. 80미터쯤 가서는 개인 땅이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고, 이번에는 시청 도로과에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고, 자부담 공사 조건으로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위기를 극복하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A동은 교회로 지상 3층, 151평 건물과 B동은 카페 지상 2층, 77평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짓는 과정에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건설사에 계약금, 중도금 등 공사 금액 중 2/3를 지불했는데, 건설사가 하청업자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모두 유용해버려서 하청업자들이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애가 타고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일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건물을 짓다가 멈춘 상태로 폐허가 되는 건물들을 종종 보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에 아버지께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건설사를 축복하시고 하청업자들이 교회를 돕게하옵소서!'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돈 한 푼 못 받은 하청업자들이 회의에서 '우리가 건물은 완공하고 돈을 달라고 하자', 이렇게 결론을 짓고, 공사를 마무리 해주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사실 저는 모든 것이 교회로 수용되어 카라반에서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3층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 16인승을 설치했고요. 그 위에 사택을 꾸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수관 동의를 해주지 않고 갑질하던 지주가 자기 땅에 건물을 짓고, 우수관을 우리 맨홀에다가 공사하겠다고 허락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갑이고, 동의 안 해주고 갑질하던 사람이 을이 되었습니다. 바로 역전되었습니다. 와서 사정사정하며 허락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이루진 것입니다. 물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12:21)는 가르침대로 허락해주었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기도해주신 총회장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전 건축에 물심양면으로 헌신 봉사해주신 분들께도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예수중심교회 담임 박찬일 목사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마음과 믿음이 뇌를 살린다

1986년, 미국 켄터키대학 연구팀은 600여 명의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연구, 수녀 연구(Nun Study)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장수와 치매 예방에 대한 의학적 관점을 바꾼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비슷한 식사, 생활습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왜 어떤 이는 끝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어떤 이는 치매에 이르는지를 밝히고자 한 연구였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수녀님들이 20대 초반에 작성한 자서전에 주목했습니다. 이 글 속에 담긴 감정, 언어, 삶의 태도가 수십 년 뒤 건강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 긍정적인 마음은 수명을 연장합니다

젊은 시절 자서전에서 같은 환경임에도 긍정적인 표현이 많았던 수녀님들은 더 오래 살고, 치매 발생률도 낮았습니다. 이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환경을 넘어 마음의 태도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삶 전체와 건강을 이끄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2. 지적 활동은 뇌를 지켜줍니다

언어 표현력이 풍부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났던 수녀님들은 노년기에도 인지기능이 잘 유지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신앙 행위를 넘어 뇌의 중추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치료제가 됩니다.

3. 뇌에 병이 있어도 치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수녀님들은 사후 뇌 검사에서 알츠하이머 병리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전에는 치매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삶의 태도와 뇌를 사용하는 방식이 질병의 발현 자체를 늦추거나 다르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 공동체와 관계는 최고의 예방입니다

수녀님들은 평생 함께 생활하며 대화하고,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나누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은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외로움으로 인한 인지 저하를 막아줍니다. 즉, 뇌 건강은 바로 삶의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을지, 어떤 약을 사용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우리 미래의 뇌 건강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Dr. 설재현 집사

:: 참된 깨달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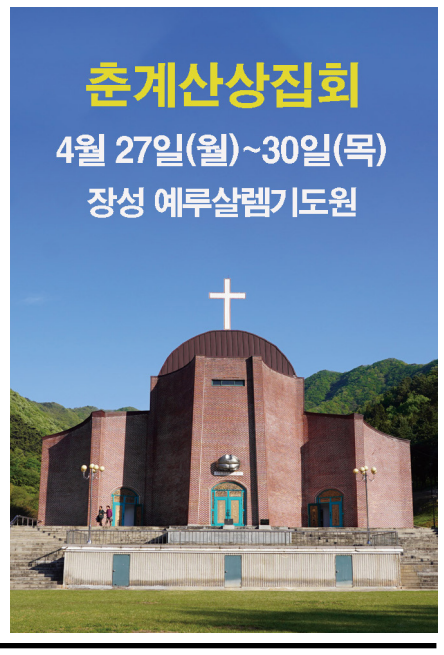
분노를 다스리는 법

분노가 차오르면 기도가 막히는 경험,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특히 가까운 가족에게 큰소리를 치거나 자녀를 훈육한다는 명분으로 감정을 쏟아낸 후에는 더욱 그렇다.

지난 2025년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에서 총회장 목사님은 '내가 서 있는 땅이 기름지기를 원하는가? 단언컨대 온유한 자가 돼라!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라고 설교하셨다. 2026년 한 해, 축복을 받고 싶은데, 선행되어야 할 것이 '온유함'이라는 말씀은 어렵게만 느껴진다. 그만큼 분노를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분노를 다루는 두 인물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께 분노했고, 시기심을 이기지 못해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말았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가족에게 버림받고 평생 떠도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반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해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분노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분노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성경은 의외로 단순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화를 유발하는 상황을 벗어나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내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내 손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길이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의식적으로 온유함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송명국 집사